

주님의교회

함글함글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60호_발행일: 2003년 11월 23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3년 교회표어: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글함글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교사 부흥회]

“교사 Motivation Training”을 통해 새롭게 헌신하는 계기가 되길

교육위원회는 11월23일(주일) 오후1:30에 지하1층 중예배실에서 교회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교사부흥회를 갖는다. 2003년의 교회학교를 마무리하고 2004년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교사 Motivation Training”이란 제목으로 열린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교사로서의 헌신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은 임성빈교수(장신대 윤리학)가 전한다. 동시에 자원봉사연결데스크에서는 2004년을 위한 교사를 모집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김현령 전도사

[자원봉사연결소식]

SOS마을 어린이성탄선물 자원신청 3시간만에 채워져

성탄사랑의 손길, 군산모자원 55가정으로 이어지길

11월16일(주일), 주님의 교회 강당 로비에는 ‘순천어린이마을’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목록이 게시된 작은 게시판 하나가 세워졌다. 교우들이 아이들의 선물목록 중 하나를 골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자는 취지였다. 이 선물목록 게시판은 원래 12월7일까지 로비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11월16일 2,3부 예배가 끝난 직후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 마감되었다. 올 겨울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줄 교우들로 인해 순천 아이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11월23일부터 12월7일까지 ‘신광모자원’에 사는 가정들을 위한 선물목록이 강당로비에 다시 게시된다. 교우들은 이들의 선물 목록을 보고 하나를 정해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고 12월7일까지 그 선물을 1층 로비의 자원봉사연결팀에게 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게시판에 앞 다투어 선물목록을 기재했던 교우들의 모습... 짧지만 은혜로웠던 그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며 여기 신광모자원을 소개한다.



함글함글’에서 예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 이곳은 주님의 교회 성도인 김미숙집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홀로 사는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다. 미혼모이거나 사별, 혹은 이혼 등의 이유로 남편 없이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엄마들 중 집이 없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힘든 상황에 처한 가정이 이곳 모자원에 입소하게 된다.

현재 55가정이 살고 있는 이곳은 크게 모자원과 자립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집안에 두 가정이 살고 있으며 한 가정에 주어지는 방은 단 한 칸이다. 그나마 34가정만이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20가정은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곳의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공동 화장실에서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 모자원에서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심한 당뇨에 천식까지 겹쳐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한 모 씨는 과출부 일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너무 말라서 언제나 퇴짜맞기 일쑤였다. 게다가 월급 부족으로 인한 빈혈증상이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였다. 한모 씨는 지금 딸아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엄마에게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에 와서 같은 반 아이들의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엄마는 딸아이에게 오백 원을 주면서 친구들을 다 사줄 수 없으니 아이스크림을 혼자 사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딸아가 잠시 후 두부 한 모를 사들고 들어 왔다. 엄마가 왜 그랬냐고 묻자, 딸아가 문방구 앞에서 생각을 했는데 동생과 엄마와 다 같이 먹을 것을 사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엄마는 딸아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두 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늘 까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단칸방에서 한 방 가득 쌓인 마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야 한다. 대개 1명에서 4명까지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 방에서 엄마와 같이 지낸다. 이 밖에도 자궁암치료를 받고 항암치료 중인 엄마, 파킨슨씨병에 걸린 엄마와 같은 병에 걸린 세 자녀, 자궁근종 수술 후 아픈 몸을 이끌며 식당일을 하고 있는 엄마도 있다. 특히 이렇게 병이 있는 엄마의 가정은 병원비와 생활비의 여력이 없어서 난방비를 못내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자원에서는 현재 담요 밖에 제공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소년소녀 가장보다 형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뛰쳐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 곳의 엄마들은 손가락 하나 없이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 더욱이 상처받은 많은 엄마들이 지병을 가진 채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한다. 김미숙 집사는 특히 화장실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찬 물로 씻어야 하는 20가정을 위해 3000원짜리 목욕권이나 6000원짜리 찜질방권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 있어서 보일러만으로는 겨울나기가 어려우므로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 겨울대비 용품이나 아니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고려하여 그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이마트,농협등)을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동심을 간직하기 버거운 현실에 놓여 있는 이곳 아이들과 멍을 지고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주님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카드를 잊지 말고 보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의 손길을 보내주었으면 한다. 자원하는 성도는 1층로비 자원봉사연결데스크로 문의바란다. (신광모자원:전북 군산시 나운3동 1249-9, Tel (063)462-7749,7741 www.mojawon.com)

허진 기자

[성도간증]

전동차 안에서 만난 하나님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956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공짜로 사탕과 과자를 나누어 준다는 소식은 저에게는 육체의 복음과 다름이 없었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25·6년이 되도록 믿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봉사, 집사 직분까지 받아가며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대문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비좁은 열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35·6살 되던 해(그 때 저는 인천 부평에 있는 부광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제 가정의 숙해있던 구역의 구역장이 이민을 가게되면서 구역장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구역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도망하다시피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심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한번도 성경을 통독해 보지도 못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젊었을 때야 철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떻게 세상 연륜과 경험이 더 많은 분들 앞에서 믿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도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중에 몇 차례 더 전화로 강권하셨

지만 그 때마다 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들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갈 계획이니가 아예 오래 말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라고...그러나 솔직히 매번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할 때 마다 마음은 편치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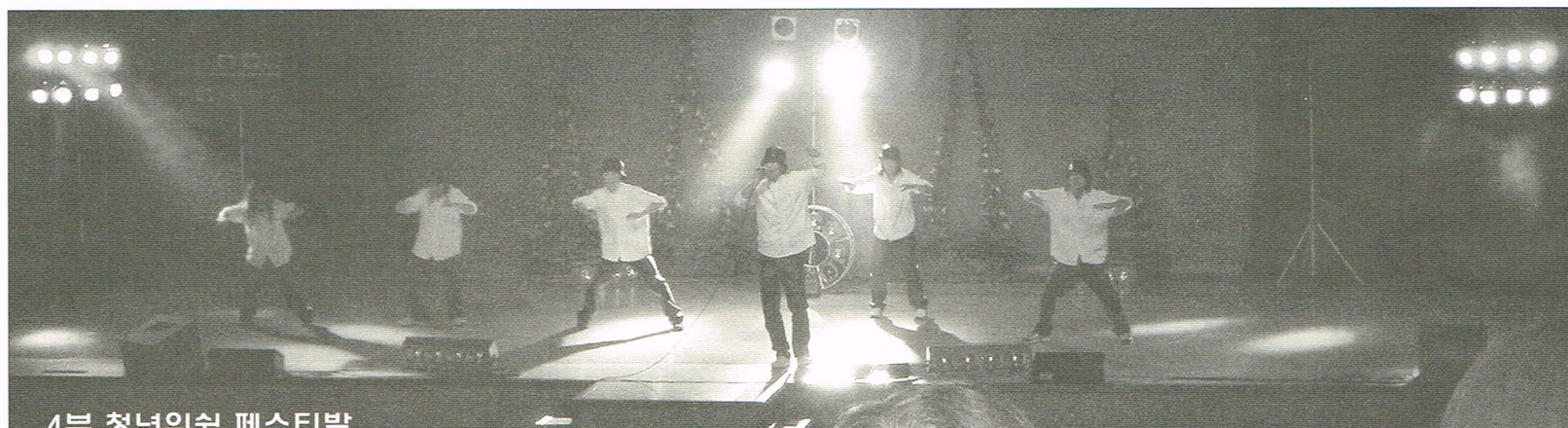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최 집사!" 최집사가 거절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최집사가 볼 때 나는 어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양심이 깨끗한 것 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 갈 때는 가더라도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맡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절하면 교만으로 비취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 밀려 구역장을 수락하고 교재를 갖고 예배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예상했던 대로 성경 찾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찾는 일에서부터 앞뒤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일 등 모든 것에서 전하는 사람이 확신없이 전하다 보니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성경을 한번 쯤 통독해 보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도움심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읽다 보니 레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줄기를 수 차례... 지금 되돌아 보아도 정말 레위기는 마의 장벽이었습니다. 힘겹게 한주 한주 구역장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연말을 맞게 되었는데 어느날 이런 양심의 소리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학교 공부는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교과서 보면서 공부했던 네가 예수 믿은지 25·6년이 다 되도록 성경은 한번도 읽어 보지 않고 나를 믿는다고 하니 너는 정말 뻔뻔스럽기도 하구나"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내년에는 성경 읽기 카드에 체크를 해 가면서 10번 정도

는 통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 해 신년 초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가끔 비좁은 전철 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저렇게 티를 내가면서 성경을 보아야 하나?" "저렇게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나?"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제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변화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저는 성경을 덮지 않고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목표의 반인 5권을 통독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확실한 신앙관이 정립되면서 모든 일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했던 구역장 역할도 전해도 되고 싶은 말씀도 많아지고 확신을 갖고 전하다 보니 마음에 기쁨도 생겼습니다. 육체의 복음(?)을 들은지 4 반세기 만에 영혼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관이 정립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언제나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창섭장로



4부 청년워십 페스티벌

young H.O.N의 댄스찬양 은혜로운 축제분위기 만들어

잘 준비된 찬양,댄스,무대효과로 참석한 교우들 모두 감탄!

그동안 유치부실에서부터 대강당에 올라가기까지 끊임없는 연습을 하며 기도해 왔던 영혼(young H.O.N)팀. 마지막 하루를 앞둔 토요일은 음향,영상 담당기사님과 완전한 호흡이 되기까지 리허설 준비가 한참이었다. 11월 16일 4부 예배를 드리고 young H.O.N의 워십 페스티벌이 열렸다. 화려한 조명과 자신 있게 준비된 찬양과 춤에 교우들 모두가 감탄해 마지 않았다. young H.O.N의 의상도 다양한 워십의 특성에 따라 맞추어져

교우를 몰입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더욱 멋있었다. 조명은 생동감이 느껴질 정도로 young H.O.N과 호흡을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다. 중간 멘트는 young H.O.N팀 멤버가 한 명씩 나와 각자가 삶을 통해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했다. 유상열 전도사님의 블랙모자 패션에 환호하며 함께 찬양하고 태권도를 하는 듯한 파워넘치는 워십에서부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부흥을 그리는 워십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다.

young H.O.N의 연습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물에는 연습하면서 계속되는 실수와 좌절감, 물려오는 피곤함을 그대로 담았다. 가볍게 웃으며 자신있게 뛰기까지 얼마큼의 노력의 무게가 필요

했는지 모두들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곡에서 "Do you wanna dance?" young H.O.N팀의 외침이 있으면 교우들이 "I wanna dance!"를 외치라는 부탁에도 어색하고 잘 몰라 같이 제대로 외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함께 일어나 박수치며 그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교우들의 모습도 아름답다. 김원재 목사님이 마지막 곡을 마친 뒤 오늘 이 행사가 페스티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모았다.

신지민기자

[앙코르찬양단]

찬양도 앙코르, 인생도 앙코르

다시 태어난 앙코르찬양단(前 실버찬양단)이 11월16일(주일) 2·3부 예배의 응답송을 불렀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파트와 흰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치마를 입은 여성파트로 나뉘어져 찬송가를 불렀다.

어린이와 노인은 그대로 무대에 올려지지만 해도 눈을 땔 수가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의 표정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다. 앙코르찬양단 단원들의 모습(비록 60대라 민기가 어려울 만큼 젊어 보이는 단원들도 있었지만)도 그러했다. 그들의 찬양모습 자체가 그들이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재시작을 의미하는 '앙코르'라는 이름처럼 많은 은화세대들이 활기찬 어린이와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진 기자

꽃꽂이봉사 김선희C집사에게 듣는다.

꽃에 취하고 예배에 은혜받고



주님의 교회 곳곳에는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다. 비록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 치장은 아니더라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훈훈하고 소박하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는 고운 분들이 있다. 예배당 꽃장식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최진옥, 강정녀, 김선희C 집사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시다. 낙엽이 지는 운치가 느껴지는 이 가을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함줄함줄에서는 꽃꽂이 봉사하고 계시는 김선희C 집사님을 만나 뵈어 몇말씀을 나누었다.

예배당 꽃장식은 언제부터 하시기 되셨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요?

예배당 꽃장식은 현재 한국 꽃꽂이협회 가양회 회장으로 계신 최진옥 집사님과, 강정녀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봉사하고 있고 저희 멤버들 모두 이 분야에 베테랑이신 분들이라 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저 역시 대학 때부터 시작해 30년동안 이 분야의 일을 해왔고 주님의 교회 창립 때부터 시작된 봉사와 더불어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지요.

예배당 꽃장식은 주로 어떤 의미로 하시고 계시며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창립주일, 부활주일과 같은 절기나 대강절 또는 세례식이나 감사절 등의 시기에 주로 하며, 주일예배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2주전부터 준비기도와 함께 스타일과 디자인을 토론하여 합의점을 구한 후 주일예배 전날 작업을 하게 되죠.

봉사를 하시면서 힘드신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가재료를 하루 전 사서 지하차고에서 물올림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재료들을 본당으로 옮길 때 힘이 좀 듭니다. 또한 작업이 끝나고 정리하고 도와줄 상급사범 이상의 도우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에피소드라면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 때 신년 예배에 쓸 꽃들을 사놓고

막상 포장을 뜯어보니 주문한 것과 달라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뒤바뀐 꽃이 소나무와 하얀 국화, 백합 등 고급스러운 꽃들이라 장식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아름답고 은혜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끝으로 봉사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보람과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꽃을 만지는 그 순간 느끼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봉사로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를 포함한 꽃꽂이 봉사원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수경 기자

[호렙산악회]

계룡산, 역사와 은혜의 현장

주님의 교회 호렙산악회원들은 11월 8일(토)에 충남 공주의 계룡산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다. 회장인 임현표 안수집사를 비롯한 회원 48명은 아침 7시에 주님의교회를 출발하여 2시간 후에는 계룡산의 서편에 있는 감사에 도착하였다. 회원들은 수려한 천혜의 경관과 신선한 공기를 피부로 느끼

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너머에 있는 동학사까지 자연적으로 포장된 돌계단을 3시간 동안 밟아 넘었다. 보슬비를 맞으면서 낙엽으로 치장된 오솔길을 걷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모를지기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화해를 경험하는 보기 드문 산행이었다.

남매탑에 얹힌 전설도 아름답지만 계룡산에는 조선시대 정감록과 관련된 예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정감록이라는 책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성행하게 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사에 관한 민속 예언서이다. 정감록은 조선의 선조인 이담이라는 사람이 이씨의 대흥자가 될 정씨의 조상인 정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들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이설이 적지 않아 확실한 근거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정감록은 조선의 흥망성쇠를 예상하며 이씨의 한양 500년, 다음은 정씨의 계룡산 1000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조씨가 가야산에서 900년 등으로 계승될 것을 예언하고 그 중간에 언제 무슨 재난과 어떤 이변이 일어나며 세태와 인심이 어떠한지라는 것들을 차례로 예언하고 있다.

조선 선조 22년인 1589년 정여립의 역모로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특히 연산군 이래 국정의 문란과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의 대란을 비롯한 당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극도로 희박해지고 장래에 대한 암담한 심정을 이기지 못한 즈음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감록은 만들어진 것 같으며 조선 5백년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가장 큰 지배를 한 책이었다.

조선 태조 2년인 1393년에는 계룡산에 도움을 하려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여 지금도 42개의 주춧돌이 남아있다. 광해군과 인조 이후 계룡산은 모든 혁명운동과도 직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미신은 신도안이라는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사이비

종파의 온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계룡산 자락에 계룡시를 개설하고 미진집단과 사이비종파를 모두 몰아냈으며 육해공군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였다. 노령산맥의 한 주봉으로 해발 828미터의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계룡산은 정감록에 의해서나 현실적으로나 하나의 명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교회 성도 중의 한 분이신 박용득 집사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설립하였는데 동연구소는 민과 군의 합작으로 핵심과학기술과 안전경제개발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었다. 연구소에서 준비한 오찬장에서 회원들은 산행의 회포를 풀고 상황실장으로부터 국방연구계획 및 실적을 보고 받은 뒤에 이상훈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먼저 찬송가 448장 "이 세상 끝까지"를 다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임현표 회장의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훈 목사의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라"는 설교말씀이 있었다.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힘있게 말씀 해주었다.

이번 호렙산악회의 등산에서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계룡면 내흥리에는 무당집을 인수하여 금식 기도원을 수립하고서 많은 고민과 지친 육신을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드는 성도들을 치유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데 역시 하나님은 이 계룡산에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곳이고 아름다우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다.

매월 계속되는 호렙산악회에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청 안수집사와 유은숙 집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장 관주 집사



{교회소식}

1. 순례단 3차회의 오늘 오전9시

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등 3개국을 2004년 1월초,중순에 15일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성지순례단 모집에 25명정도의 성도들이 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여행사섭외, 각종예약 등의 실무를 담당할 총무,회계를 선출하기 위하여 3차 성지순례단 회의가 오늘 (9일) 오전9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 입교 및 세례 교육모임

입교 및 세례식이 12월3일 오후8시 수요일성경공부시간에 있습니다. 11월23,30일 매주일 오후 1:30-2:30에 4층대예배실에서 입교 및 세례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의료 선교부

한해를 보내며 올해의 의료 선교부 국내외 활동 반성과 새해의 활동 계획을 의논하고 친교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의료 선교부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비전문인이나 의료 전문인 약사, 간호사, 의사 등의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김광일 집사(017-232-5880)에게 문의바랍니다.

4. 안수집사회 가을산행 및 기도회

안수집사회는 수락산으로 가을산행을 갑니다. 11월29일 (토) 10:30분에 지하철7호선 수락산역 1,2번출구, 수락산방향 약 50미터 지점 소방서앞으로 모여주세요. (문의:016-706-2331 한정웅 집사)

5. 고등부 징검다리 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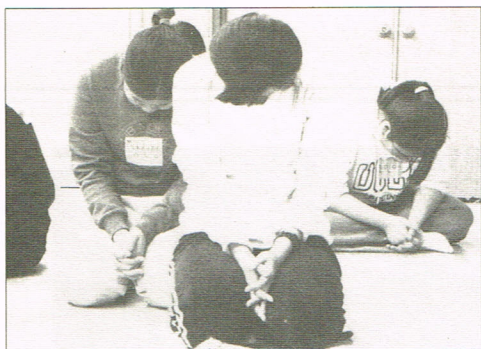
고등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징검다리 바자회를 엽니다. 징검다리란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나눔'으로 고등부가 2년째 실천해오는 운동을 말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경제적인 활동 속에서 그 일부를 의도적으로 떼어내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실천 운동입니다. 오늘은 그 행사의 다른 모습으로 먹거리 바자회를 갖고며, 수익금 전액은 징검다리 운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사부흥회 "교사 Motivation Training"



[교우동정]

도은식집사(33구역장)가 11월22일 서초구 반포동 법원경찰청 부근에 '조은병원'을 개업하며 구역식구들과 함께 개업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집사 외 6명의 전문의가 있으며, 진료과목으로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입니다. (조은병원: 서초구 반포4동440-3 Tel:591-3777)



[고3 수련회]

인생수레바퀴의 균형을 잡으라

11월15일 토요일 경기도 수동에 위치한 정동제일교회 수양관에서 올해 수능을 치른 고3학생들과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에 맡기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으로 준비되어졌다.

특히 이의용 소장(한국교회 문화연구소)의 강의를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하면서 정체성, 비전, 좋은 인상과 좋은 태도,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팔로워십은 우리의 사고에 새롭게 도전했다. 또한 우리에게 한 우물만 파지 말고 그 주변의 것들도 파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하시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하셨다. 어떠한 것도 다른 것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되고 균형있게 개발하고 훈련하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강의가 끝나고 낮은 울타리에서 오신 간사의 진행으로 인간관계 훈련이 시작되었고 서로 웃고, 서로 도우며, 기다려주는 시간을 통해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무르익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제목들을 나누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렸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127:1)

교사 박혜경

[성지순례 연재 원고 11회]

물질로 풍요하고 영적으로 빈곤했던 도시, 라오디게아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로 이동하는 동안 라오디게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신던, 성서지리를 전공한 목사님이 귀한 충고를 해주신다. 어떤 여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성지 순례는 목적지를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관련 자료를 훑어보면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고문제를 느끼는 것만큼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라오디게아는 그리스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로서 자신의 왕비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아(Laodicea)로 명명하면서 비롯되었다. 라오디게아는 아시아의 무역로에 위치한 탓으로 상업과 금융의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로마 시대에는 전략적 위치가 더욱 강조되어 극도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라오디게아가 지닌 유일하게 불리한 점은 충분하고 지속적인 식수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곳에서 나던 물에는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 냄새가 심하고 마시면 토하는 증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지역의 온천수를 끌어 들였는데, 그 물이 루커스 평야를 거쳐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약 7km에 이르는 수로를 거쳐오면 물이 식어 미지근해졌다. 또한 노천에 흐르는 물은 오염이 심각해져서 거기에서 수영을 하면 눈병과 귓병이 생겼다. 이곳이 안과학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러한 눈병을 치유하는데 탁월한 안약 '콜리리움'을 제조하는 기술 때문이었다.

이 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거하는 동안(행19:10) 에바브로의 헌신적인 노력에 기인했을 것이다.(골4:12-13)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한 기록은 없지만 히에라폴

리스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은 바로 이 교회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이 편지는 구약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라오디게아의 환경과 특성을 비유 삼은 것이 특징이다.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지역, 그 교회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부심을 지녔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육의 삶이 더 없이 풍요로웠으므로 교회는 자만하기 쉬웠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육신을 치유했던 좋은 약과 의사로도 자신들의 영적인 병을 보지도, 치료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계3:14-22)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과 음행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 용서와 사랑을 외치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성령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티는 듯한 마

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약속하셨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갱생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다. 교회 터조차 알 수 없이 무너져 내린(※많은 사람들이 교회 터라고 생각하는 곳은 터키의 권위 있는 고고학자의 말을 빌린 실제 목욕탕 시설에 불과하다고 한다) 라오디게아, 그 곳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무수한 대형 교회들을 떠올렸다. 이미 너무나 부유하고 자만해져서 영적인 가난함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치유할 '안약'의 능력마저 상실한 교회들...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심판 받게 될 지를 계시해주는 현장을 돌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했다.

"우리 교회는, 아니 나 자신은 현상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가난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니고 있는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가? 결코 토함을 받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받을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화주 집사